

새롭게 등장한 해외 연구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

GIST는 2021년까지 이어진 Caltech(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이하 칼텍)과 10년간의 동행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외 연구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신설된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파견 형식을 다변화하고 기회를 확장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GIST 학생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의 지원받으며 해외에서 연구 인턴십을 진행해 연구 역량과 열정을 키울 수 있다.

GIST-Caltech 학부생 프로그램 종료

GIST와 칼텍의 학부생 프로그램은 2011년 여름학기 연구 프로그램인 SURF로 GIST 학부생 2명을 파견하며 시작됐다. 두 학교는 2012년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포괄적인 교류 협력을 시작한 이래 SURF 프로그램, SAP, 계절학기 교환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GIST는 꾸준히 칼텍과 학생교류 협력을 논의해왔으나 칼텍의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2021년 SAP 파견을 끝으로 학부생 프로그램이 종료됐다.



삽화 = 이경민 기자

새로운 국제 교류 프로그램

GIST 국제교류팀은 칼텍과의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대체할 방안을 모색했으며, 그 결과 새로운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해외 연구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기존 프로그램은 소수 인원을 집중 지원했지만, 새로

운 프로그램은 선발 학생 수를 확대하고 파견 대상 학교를 다양화했다.

해외 연구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은 학생이 파견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기존 프로그램은 GIST와 칼텍이 체결한 MOU에 근거해 칼텍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만 지원 대상이었다. 하지

만 해외 연구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은 여러 해외 기관과 대학에서의 연구 활동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GIST 국제교류팀은 본 프로그램이 다른 지원 프로그램과 달리 외부 지원이 있더라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원 방법과 요건

해외 연구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Case 1은 해외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이 운영하는 자체 연구 연수 프로그램(인턴십)에 개별 지원해 선발된 학생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인턴십 프로그램, 칼텍 SURF 프로그램 등이 Case 1에 속한다. Case 2는 학생이 해외기관이나 연구실과 연락해 연구 연수를 신청하고 승인받은 뒤, 해당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는 방식이다.

(2면으로 이어짐)

실패해도 괜찮아, 고민보다 Go!

- "고민할 시간에 도전하길" 참여 학생 후기
- 무한도전 8기에 건네는 한 마디

>> 2 면

인공지능 연구의 현주소, ChatGPT

- ChatGPT 핵심 원리는 인공지능명 '트랜스포머'
- 대화형 인공지능의 한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 3 면

약효 시간 조절하는 전하 증폭 코리료

- 펄타이드 이용해 단백질 약물의 약효 시간 늘려
- 플랫폼 기술로의 상용화 기대

>> 5 면

일상 밖 여정으로의 초대: 오룡아트홀 최순임 초대전

- 최순임 디렉터와 5문 5답
- 다채로운 전시가 있는 오룡아트홀

>> 6 면

<지스트신문>, 속보체계 시작

<지스트신문>이 빠른 교내의 소식 전달과 온라인 보도 활성화를 위해 속보체계를 도입한다. 속보 기사는 <지스트신문>의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웹메일 구독 서비스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줄어드는 지면 신문 독자

지면 신문의 접근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22년 9월 실시한 '지스트신문 인지도 조사'에서, <지스트신문>을 읽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34.8%(114명)였다. 그중 40.4%(46명)가 신문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 한편, 신문 읽는 것에 흥미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44.7%(51명)에 달했다. 다른 매체를 이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8.1%(32명)였다. 2021년 9월 실시한 '지스트신문 인지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열독률이 상승했지만 응답자 수는 줄었다. 지면 신문을 벗어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지면 신문의 한계를 넘어

<지스트신문>은 빠른 교내·외 소식 보도와 독자 확보를 위해 2023년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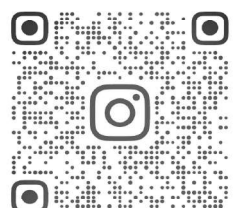
속보체계를 도입한다. 속보체계란 시의성이 중요한 소식을 속보 기사로 인터넷 등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속보 기사는 <지스트신문> 홈페이지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gistnews_official), 웹메일 서비스로 제공된다.

속보 기사의 신속성은 기존 지면 신문의 발행 간격이 약 한 달 정도로 매우 길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보완한다. 온라인으로 보도되는 속보 기사는 학기 중 지면 신문 발행 사이에, 그리고 지면 신문이 발행되지 않는 방학 중에도 크고 작은 교내·외 소식을 전달할 수 있다. 중요한 소식은 속보로 먼저 알리고, 추가 취재 후 지면 신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면 빠른 정보 전달과 함께 깊이 있는 내용 제공이 가능하다.

속보체계는 <지스트신문>의 온라인 보도 활성화를 위한 주춧돌이다. 올해 속보체계의 목표는 연 10회 온라인 보도다. 차후 원내 외국인 구성원을 위한 영문 속보 기사도 전달할 계획이다.



지스트신문 웹메일 구독 신청 QR 코드



GISTNEWS...OFFICIAL
 지스트신문 인스타그램 페이지 QR 코드

대학

실패해도 괜찮아, 고민보다 Go!

실패해도 좋아, 한 번 도전해보는 거야! '무한도전 프로젝트(이하 무한도전)' 8기가 오는 4월 20일까지 모집 중이다. 무한도전은 학과 공부 이외에 '딴짓'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3C1P형 인재 성장을 돕는 프로젝트다.

2016년 시작된 무한도전은 GIST의 교육철학인 '3C1P형' 인재 성장에 주안점을 둔다. '3C'는 창의성(Creativity),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on), 협동심(Cooperation)을, '1P'는 문제해결 능력(Problem Solving)을 의미한다.

무한도전 8기는 전년도와 같이 ▲창의적 제품 제작 활동 ▲3C1P 역량강화 그룹 활동 ▲지정 공모 3개의 분야로 나누어 선정한다. 1인 1과제 참여가 원칙이며, 휴학생을 제외한 학사과정 재학생 2인~6인으로 구성된 팀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평가위원단은 ▲창의성

▲잠재력 ▲계획(계획의 타당성) ▲예산의 적절성을 기준 삼아 신청팀의 역량을 심사한다. 2023년 무한도전은 전년도와 비슷한 일정으로 이루어지되 모든 행사를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스트신문〉에서는 2022년 무한도전의 주역 교수와 참여 학생을 만나 생생한 경험담과 프로젝트 목적의식을 들어봤다.

창의적 작품 제작 활동, 인문부터 과학까지 풀어나가

팀 창설 계기와 목표는?

전태현(전컴, 22, 이하 '전'): 'GISTABLE'은 과학고등학교와 달리 일반고등학교 교육 과정상 부족했던 실험 경험을 메꾸고자 창설됐다. 여러 분야에서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택하고, 과학적 원리를 분석해 실험을 진행했다. 자유 낙하와 같은 기초 실험부터 아두이노 동력 비행

기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교육 자료용 영상으로 남겼다. Youtube와 같은 영상 플랫폼을 통해 초·중·고 실험 교육에 길잡이 역할을 하고자 했다.

신재민(전컴, 22, 이하 '신'): 'GINEMA'는 'Cinema'와 'GIST'의 합성어로, 단편 영화 제작을 목표로 했다. 기존에 원내 영화 제작 동아리가 있었지만, 활동이 부진했다. 이를 모르고 동아리 모집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다가, 무한도전을 통해 영화 제작에 관심 있는 학우와 팀을 창설했다. 단편 영화에는 무한도전 프로젝트의 가치를 고스란히 담고자 노력했다. 팀원과 협력해 각본부터 캐스팅, 촬영 및 편집까지 총괄해 활동했다.

원내 동아리나 자치회가 존재함에도

무한도전을 택한 이유가 궁금하다.

신: 원내 분위기가 도전과 소통을 권장하다 보니, 동아리와 자치회도 무한도전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특히 무한도전에 비해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다. 하지만 동아리와 자치회에는 공동된 이해와 방향성이 있기에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자신의 관심사를 온전히 표현하고, 3C1P 인재상을 이룩하기에는 무한도전이 가장 마땅했다.

비록 1인 1팀 구조지만, 협업하고 싶은 팀이 있었다면?

전: 앞서 언급했듯 GISTABLE은 실험뿐만 아니라, 교육 자료 제공도 목표로 삼았다. 그렇다 보니 두루두루 실험을 진행했다. 로켓 발사, 게임 개발 관련 팀들과 협업해 실험을 진행해보고 싶었다. 단순 실험에 그치지 않고, 교육에 초점을 맞춰 영상을 편집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했다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신: 단편 영화 주제가 미술과 연관 있다 보니, 미술품 제작팀인 '내가 그린 기린 그림'과 교류하고자 했다. 비록 양 팀 간 일정이 조율되지 않아 협력이 이루어지지지는 않았지만, 협력했다면 분명히 시너지 효과를 냈을 것이다.

무한도전 프로그램 자체에서 팀 간 협업 구조를 막진 않는다. 하지만 수료식 이전 다른 팀과 계획 및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은 발대식과 중간발표회뿐이다. 물론 신소재공학동에 '딴짓' 공간이 있지만, 활발한 교류가 오가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무한도전에서 팀 간 협력을 더욱 장려해 공동 프로젝트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다음 면으로 이어짐〉



무한도전 기

“실패해도 괜찮아,
“계속 도전해보는 거야!”

삽화 = 송혜근 기자, 이경민 기자

GIST, 학생 해외 경험 지원으로 연구역량 키워

〈1면에서 이어짐〉

해외 연구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은 인턴십 활동에 관해 연구 활동 승인(합격통지서)을 받은 GIST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학교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활동 기한(6~10주 기준, 기준 외 기간이면 별도 심사)을 충족하고 인턴 시작 시점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올해 신설되는 프로그램인 만큼 지원 시기는 불규칙적일 수 있으나, 분기별 1회 정도 접수한다. 지원 인원수는 15명 내외로, 연내 신청 및 승인 인원이 예산 규모를 초과할 경우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해외 연구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의 의의

해외 연구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은 단순히 학점 이수

를 위한 과전 프로그램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해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됐다. 해외 인턴십을 통해 학부 수준에서 실질적인 연구 참여를 지원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본 프로그램은 학점 이수 연구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해외 경험을 원하는 학생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해외 연구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은 평소 연구에 대해 생각해보지 못한 학생에게도 연구 역량과 열정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해외 연구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의 차별점과 유의 사항

GIST에서 진행하는 기존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은 참가자 선발 시 가능한 한 중복해택 배제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해외 연구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 연구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은 기존 인턴십을 마치고 새로운 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학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 기간 내 상이한 연구에 대한 중복 지원과 동일 기관에서의 연구 활동 연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GIST에서는 신설 프로그램 이외에도 정규학과와 계절학기에 여러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규학기 프로그램으로는 Study Abroad Program(SAP)과 Mobility Program(해외 교환학생)이 있으며, 여름학기에는 UC 버클리, 보스턴대학, 케임브리지 대학에서의 학점 이수 프로그램이 있다. 이 밖에도 GIST IPA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해외 봉사 및 특별 프로그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상우 기자 swkim021@gm.gist.ac.kr

함께하는 무한도전! 실패 없는 무한도전!

3C1P 역량 강화 그룹 활동, 함께 뛰어들고 봉사하다

팀 창설 계기와 목표는?

강민서(전컴, 21, 이하 '강'): 처음에 제빵을 하고 싶은 마음에 6명이 모여 '세상에서 제일가는 제빵사'를 창설했다. 단순히 제빵에 그치지 않고 이 기회를 의미있게 활용하기 위해 인근 보육원에 우리의 빵을 기부하자고 다짐했다. 아이들이 먹을 빵이다 보니 훨씬 정성을 들였다. 팀원과 제빵 교실에서 기술을 배운 후, 공유 주방을 빌려 마들렌 360개를 제작했다. 활동 후반에는 직접 보육원에 빵을 전달했고, 우리만의 빵에 나름의 의미를 더할 수 있었다.

활동 중 겪은 실패와 성장 포인트가 있다면?

강: 원래 목표는 마카롱이었다. 초반에 전문가의 코칭을 받으며 자신 있게 마카롱 300개를 만들었다. 하지만 기부하기에는 완성도가 낮다고 판단했고, 결국 마카롱을 전부 포기했다. 오히려 초반에 실패를 겪고 나니, 실패가 생각보다 두렵지 않음을 실감했다. 마카롱 제작 과정을 돌아보며 제빵 시간, 주방 온도 등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의논했다. 덕분에 마들렌에 성공해 보육원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무한도전이 끝난 후 개인적으로 모여 케이크와 소금빵을 완성했던 경험에도 무한도전의 가치가 고스란히 담겼다고 생각한다.

지정 공모, 모두를 위한 개발을 선보이다

팀 창설 계기와 목표는?

심수연(전컴, 21, 이하 '심'): '개발바닥'은 개발의 바닥부터 시작해보자는 의미를 내포한다. 원내에는 심리학 실험실이나 VR 기기 실험과 같이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는 연구실이 여럿 있다. 하지만 모집 공고를 카카오톡이나 예브리

타임 등 고정되지 않은 플랫폼에 올리다 보니 불편함이 발생했다. 실험에 참여하고픈 사람과 연구실의 수요가 한 곳에서 만나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팀을 창설했다. 원내 실험 참가에 대한 관심도를 올리고, 연구실에서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다.

특별히 무한도전 팀장으로서 성장했다고 여기는 점은?

심: 7기 때는 개발바닥으로 도전했지만, 6기 때도 'GISTORY' 팀에서 책 출판 및 북콘서트 봉사를 진행했다. 두 기수 모두 팀장으로 참여하다 보니, 책임감과 리더십이 강해졌다. 한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내야 하는 성격도 팀장 역할에 적합했다고 생각한다. 7기 때는 팀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1년간 꾸준히 총 30~40개의 회의를 진행 및 기록했다. 팀장으로서 강한 활동 의지를 보인 덕에 팀원에게 참여를 독려했고 믿음을 줄 수 있었다. 무엇보다 팀원과 함께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며 달려드는 모든 과정이 의미있었다.

곧 시작되는 무한도전 8기에 견뎌내고픈 한 마디.

강: 무한도전은 GIST에만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다. 하지만 학과 공부나 인턴 생활로 성공할 수 있을까 두려워 계속 미루는 친구들이 여럿 있다. 무한도전이 가장 귀히 여기는 가치는 계획성과 성취감. 좋은 실패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결과가 실패여도 그 과정을 피드백하고 또 다른 성과를 쫓아주는 과정은 무한도전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이다.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도 하지 못한다. 진정으로 원하는 주제에 덤벼드는 자세로 무한도전을 맘껏 활용하길 바란다.

심: 6기 책 출판 활동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주제였다. 그만큼 팀과 함께 거침없이 도전한 결과 든든한 열매를 거두었다. 이처럼 자기가 정말 흥미

이고, 끝까지 끌고 나갈 확신이 있는 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무한도전은 학생의 도전을 묵묵히 응원하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 이러한 환경을 충분히 누리려면, 학과 공부 이외에 대학 생활의 원동력을 가득 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무한도전의 길이 열려있는 모든 재학생에게 고민할 시간에 바로 도전하고 전한다.

무한도전, 3C1P를 위한 다리가 되다

무한도전에서 진정한 '실패'란 무엇인가?

김희삼 교수: 활동 계획서의 목표를 완벽히 이루지 못한 것이 실패라면 성공한 팀이 많지 않다. 무한도전에서의 실패는 '중도 포기'다. 그런 점에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실패한 팀은 거의 없다. 무한도전은 학생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주기를 바랄 뿐, 계획한 그대로 모두 이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무한도전 프로젝트에는 외국인 학생들의 비율이 낮다. 그 이유가 있다면?

김희삼 교수: 우선 외국인 재학생들에게는 GIST에 유학 온 것 자체가 상당한 도전이다. 외국인 학생이 비교과 활동까지 참여하기에는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한 GIST 학부 과정에서 외국인을 받기 시작한 시기는 비교적 최근이다. 아직 외국인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접근성이 한국인 학생과 같지는 않다 보니 무한도전에서 외국인 재학생 참여자 비율이 낮다고 본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이 한국인 학생과 협업하며 무한도전 프로젝트를 완수한다면 그때 느끼는 성취감은 분명히 한국인 학생 이상일 것이다. 서로 간의 벽을 깬다면 기존보다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 확신한다.

팀 선정 시 가장 깊게 평가하는 항목은?

김태영 교수: 평가위원단에서는 창의성 항목을 가장 비중 있게 판단한다. 무한

도전에서 말하는 창의성이란 여러 지식 정보를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팀원과 만든 새로운 조합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에 힘을 충분히 발휘할지 평가한다.

무한도전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중등 교육과정에서는 정답이 곧 목적이었다면, 무한도전은 실패와 성공의 의미를 자기의 경험과 언어로써 정의하는 과정을 귀히 여긴다. 자신이 목표를 설계할 때 신선함과 구성성을 담은 방법을 강구하고 비관해보면 그 잠재력이 더 돋보일 것이다.

앞으로의 무한도전에 대해 한 마디.

김희삼 교수: 여러 학생이 무한도전에 관심은 있지만 학업이 소홀해질까, 바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하지만 무한도전 프로젝트만큼 대학 생활에서 기억에 남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신이 GIST에서 어떤 점을 찍는지는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추후 점들을 이어 새로운 뭔가를 탄생시킬 때 무한도전이 결정적인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무한도전에서 좋은 실패를 경험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긴다면 실질적인 배움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김태영 교수: 무한도전 프로젝트는 동일함의 반복이 아닌 차이의 생성을 강조한다. 평형 상태에서 멀리 벗어나 새로운 반응을 끌어내는 것이 무한도전에서 바라는 모습이다. 무한도전 8기는 7기에 비해 더욱 적극적인 외국인 참여와 활발한 팀 간 협업을 권장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 무한도전의 지원을 눈먼 도움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한다. 자신만의 참가제를 넣어 그 뜻에 도전하고 3C1P의 힘을 길러나가길 기대한다.

천태성 기자
taeung1121@gm.gist.ac.kr

돌아온 새내기 배움터

지난 2월 24일과 25일에 걸쳐 문화행사위원회(이하 문행위) 주관 2023년도 새내기 배움터(이하 새내기 배움터)가 열렸다. <지스트신문>에서는 이번 새내기 배움터를 돌아보고 신입생 참가자의 만족도를 살폈다.

1박 2일 동안 추억 만들기

문행위가 2019년도 이후 처음으로 새내기 배움터를 추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행사가 불가능했던 지난 3년과 달리 자유로운 대면 행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새내기 배움터는 신입생이 새로운 친구들과 다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평소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색다른 즐길 거리로 꾸며졌다.

문행위가 주관하는 새내기 배움터는 신입생이 동기, 선배와 1박 2일 동안 여행을 떠나며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신입생 약 170명, 문행위 측 인원과 신입생 인솔을 도운 재학생 조장까지 2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새내기 배움터는 참여 인원을 전부 수용

할 수 있는 무등산 인근 자연휴양림 일대에서 이뤄졌다.

낮 게임 프로그램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새내기 배움터가 시작됐다. 각 조는 휴양림 속 넓은 운동장을 돌아다니며 문행위 진행위원이 준비한 게임을 한 뒤 점수에 따라 포인트를 얻었다. 조별대항전 게임에서는 모은 포인트를 걸고 다른 조와 대결했다.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는 저녁 식사 재료와 교환하는 데 사용됐다.

조별로 구대한 식자재로 저녁을 요

리해 먹은 다음,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레크리에이션은 약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에서 열렸지만, 새내기 배움터 참가 인원이 많아 편의상 시간을 나눠 진행됐다. 게임 상품으로는 조별 자유시간에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안주, 아이스크림, 배달 음식 등이 제공됐다.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끝나고, 조별 자유시간 동안 참가자는 자유롭게 놀거나 휴식을 취했다.

< 다음 면으로 이어짐 >

종합

새내기 배움터 만족도 조사

<3면에서 이어짐>

대형 행사 준비, 아쉬움 남아

문화행사위원회 박상욱(기계, 21) 위원장은 “새내기 배움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가한 신입생 여러분께 가장 감사하다. 아침부터 밤새도록 열심히 일한 문행위 위원과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 조장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라고 이번 새내기 배움터를 무사히 마친 소감을 말했다. 덧붙여 박 위원장은 “예산 문제나 인원 문제로 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드리지 못했다”라며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행사를 준비하며 어려움도 있었다. 박 위원장은 “문행위 부원과 조장의 도움으로 인원 파악은 수월했다. 하지만 많은 인원이 동시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예정보다 일정이 지연됐다”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숙소 선정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근처에 새내기 배움터 참가 인원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숙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친구와 즐거운 시간 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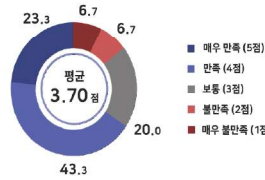
식사·숙소 시설은 아쉬워

<지스트신문>은 2023년도 새내기 배움터에 대한 신입생 참가자의 의견을 묻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4일간 학부 신입생 23학번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총 34명이 응답했다. 본 조사의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16.34%p다.

새내기 배움터에 대한 만족도는 총점 5점 만점에 3.70점으로 조사됐다. 만족도에 높은 점수를 매긴 신입생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기회 제공 ▲다양하고 재미있는 게임 ▲음주 강권 없음 등을 이유로 꼽았다. 낮은 만족도를 보인 응답자는 ▲배정받은 숙소에 따라 이동제한 ▲수면 공간과 술자리 구분 모호함 ▲저녁 식사 분량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 외에도 계속되는 일정 지체, 숙소 일부 시설 이용 불편, 기본 안주 부족 등이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2023 새내기 배움터 설문 (GIST 1학년 학부생 34명 응답)

2023 새내기 배움터 만족도 (단위: %, 총 30명 응답)



상하 = 최정은 기자

학생 단체 행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단위: %, 총 34명 응답)



설문에 참여한 신입생은 학생 단체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참가자 간 친목 형성’(70.5%)을 꼽았다. 자유로운 분위기(11.8%), 행사 중 안전 보장(11.8%), 부담이 적은 참가 비용(5.9%) 등의 요소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새내기 배움터에 참가한 익명의 응답자는 “공평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저녁 식사 제공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한 응답자는 “기본 제공 품목을 늘리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라며 의견을 드러냈다. 또 다른 응답자는 “2일 차 아침에 가벼운 운동 같은 일정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김성우 기자
kimseongu22ug@gm.gist.ac.kr

인공지능 연구의 현주소, ChatGPT

작년 11월 인공지능 회사 ‘OpenAI’에서 공개한 챗봇 ‘ChatGPT’는 연일 화제의 중심에 있다. 이에 <지스트신문>은 인공지능 모델의 표현 방법과 동작 방식을 연구하는 우리 원 A 교수에게 ChatGPT의 이론적 배경과 한계 및 전망에 대해 물었다.

핵심 원리는 인공지능명 ‘트랜스포머’

ChatGPT는 OpenAI에서 개발한 언어모델 ‘GPT’를 활용한다. 언어 모델이란 실제로 사용되는 문장들을 결정 및 생성하는 인공지능 모델이다. 2018년 GPT-1을 시작으로 GPT-2와 GPT-3이 공개됐으며, ChatGPT는 GPT-3.5를 기반으로 서비스한다. 지난 3월 14일 발표된 GPT-4는 ChatGPT의 유료 서비스인 ChatGPT-Plus와 검색엔진 ‘Bingchat’을 비롯한 몇 가지 응용 프로그램에 적용됐다.

모델의 차이에 대해 A 교수는 “GPT 계열은 기술적인 틀은 유사한 채 학습하는 데이터의 규모만 확장되는 방식”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GPT-3.5를 기반으로 하는 ChatGPT에서는 2021년

9월 이후 사건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GPT는 인공지능명망의 일종인 ‘트랜스포머(transformer)’를 바탕으로 한다. 트랜스포머의 원리에 대해 A 교수는 “입력 정보들에 대한 복잡한 연관 관계를 어텐션 메커니즘(attention mechanism)¹⁾을 통해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트랜스포머는 자연어처리²⁾ 분야에서 실용성을 인정받아 최근 개발되는 인공지능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빅스비’, ‘시리’와 차이점은?

빅스비와 시리 같은 개인 비서 서비스는 음성 인식, 언어 모델 등 여러 인공지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서비스의 한 종류다. 반면, GPT는 이러한 서비스를 구성하는 인공지능 모델의 일종이다. GPT와 같은 인공지능 모델이 모여 빅스비 또는 시리 등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루는 셈이다.

최근 개발되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대부분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데이터의 종류와 학습 방식에서 차이를 두고

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BingChat’을 비롯한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 GPT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개인 비서 서비스도 앞으로는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한 모델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했다.

대형 언어 모델, 기술 발전에 유용해

GPT를 비롯한 대형 언어 모델이 우리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A 교수는 “인류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풀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답했다. A 교수에 따르면 대형 언어 모델은 서로 다른 언어 기반의 문제들을 한 모델에 모두 답할 수 있어 문제 간 학습정보 공유 능력이 강력하다. A 교수는 이러한 발전이 과거의 모델이 넘을 수 없었던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기술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화형 인공지능의 한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ChatGPT의 가장 큰 기술적 문제는 사람이 체감하기에 부족한 정확도다.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내용은 희소성이 높아 일관된 지식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어 A 교수는 “추론 과정에도 문제가 있어 오랜 기간 연구가 진행 중인 분야”라며 인공지능 연구가 맞춰야 할 초점을 제시했다.

저작권 문제는 ChatGPT가 일으킨 인공지능 관련 화두 중 하나다. 일례로 ChatGPT가 생성한 내용을 대학교 과제로 제출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어떤 저작물이나 시험 결과가 AI에 의해 생성됐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더불어 이러한 논의가 오히려 인공지능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A 교수는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제약이 생겨도 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오히려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이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윤리적 문제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김예릭 기자
key030704@gm.gist.ac.kr

1) 어텐션 메커니즘: 문장 전체의 중요성을 모두 분석하는 대신, 중요한 부분만을 집중(attention)해 문장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2) 자연어 처리: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에 인식시키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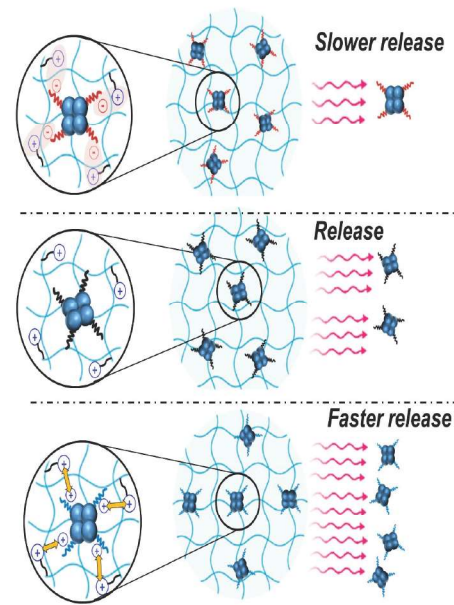
약효 시간 조절하는 전하 증폭 꼬리표

GIST 신소재공학부 권인찬 교수 연구팀이 단백질 약물의 약효 지속 시간을 조절하는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전하를 띤 펩타이드를 약물에 융합해 약효 시간을 제어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펩타이드 꼬리표는 아스피린, 타이레놀 등 저분자 약물에도 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약효 지속이 관건

단백질 약물이란 생체에서 충분히 얻기 힘든 치료용 단백질 성분을 대량 생산한 의약품이다. 단백질 약물은 독성이 낮고 작용기전¹⁾이 명확하다. 따라서 희귀성, 난치성 질환 치료에 효과가 뛰어나다. 이러한 단백질 약물은 퇴행성 및 난치성 질환 치료제 또는 환자 맞춤형 표적치료제로 사용된다.

하지만, 단백질 약물은 체내에 주입되면 빠르게 분해되기 때문에 약효 지속 시간이 짧다는 문제점이 있다. 단백질 약물의 약효 지속을 늘리기 위해서는 약물을 반복해서 투여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다 투여는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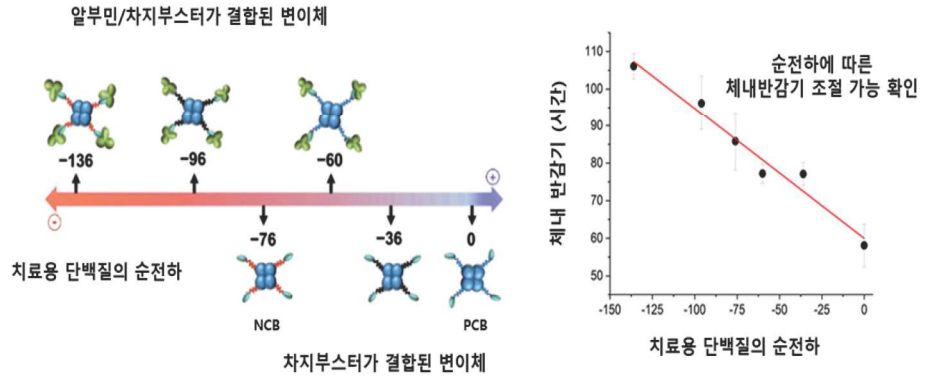


약물 단백질의 구조와 전하 증폭 꼬리표의 전하 크기에 따른 약물의 방출 속도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약효 지속 시간은 단백질 약물-약물 전달체²⁾ 간의 결합력에 따라 결정된다. 약물 전달체가 체내에서 치료 단백질을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약물 전달체의 종류를 다르게 하거나 구조를 바꾸는 등 약효 시간을 늘리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돼왔다.

전하 증폭 꼬리표로 방출 속도 조절한다

연구팀은 약물 전달체가 아닌 치료 단백질에 새로운 소재를 융합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권인찬 교수는 “화학, 물리 시간에 배우는 전하 간의 상호작용을 이용하면 약물 방출 속도를 훨씬 편하게 조절할 수 있



(좌) 전하 증폭 펩타이드/알부민을 통해 부여된 음전하 크기에 따라 단백질 변이체를 나열한 모습 (우) 치료용 단백질의 순전하 크기와 체내 반감기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

다고 생각했다. 약물 전달체와 약물이 가지는 특정 전하의 값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전하 증폭 꼬리표를 단백질 약물과 결합했다”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약물에 붙이는 전하 증폭 꼬리표의 소재로 펩타이드를 채택했다. 펩타이드는 아미노산 단위체들이 인공적으로, 혹은 자연 발생적으로 연결된 중합체다. 단백질과 펩타이드 모두 수많은 아미노산의 결합체이기 때문에 펩타이드와 단백질 약물은 비교적 쉽게 융합된다.

연구팀은 약물 전달체로 온도 감응성³⁾ 수화젤⁴⁾을 사용했다. 합성 고분자로 구성된 온도 감응성 수화젤은 실온에서 용액 상태다. 하지만, 수화젤로 감싸인 약물을 혈관에 투여하면 온도와 pH가 높아져 수화젤의 소수성이 증가한다. 그 결과, 수화젤은 서로 응집해 젤(겔) 상태로 변화한다. 수화젤의 이러한 성질은 약물을 오래 지속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연구팀은 펩타이드와 수화젤을 활용해 양전하 증폭 꼬리표와 음전하 증폭 꼬리표를 설계했다. 약물이 가지는 고유 전하는 양극과 음극 모두 존재할 수 있으므로 연구팀은 양극의 꼬리표를 설계해 실험을 진행했다. 설계 과정에서 전하를 띤 펩타이드는 약물과 결합해 약물 단백질-약물 전달체 간의 전하 상호작용을 조절했다. 이 과정에서 전하 증폭 꼬리표는 다른 화학반응 없이 약물의 전하 조절에 직접 관여했다. 권 교수는 “특정 전하 증폭 꼬리표만 달았을 때, 약효 지속 시간의 변화를 확실히 증명하기 어려워 반대 전하를 띤 꼬리표를 달았을 때의 변화도 실험했다”라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설계한 전하 증폭 꼬리표를 통풍 치료용 단백질 약물에 융합해 양전하를 띤 수화젤에 주입해 약물 방출 속도를 확인했다. 실험 결과, 음전하 증폭 꼬리표를 붙인 약물의 방출 속도는 기존 약물 방출 속도의 86%로 가장 느렸다. 반대로 양전하 증폭 꼬리표를 융합한 결합물은 기존 약물보다 183% 증가한 방출 속도를 나타냈다. 전하 증폭 꼬리표와 수화젤이 같은 극이라면 서로 척력이 작용하며, 반대로 다른 극이라면 인력이 생긴다. 따라서 양전하 증폭 꼬리표를 융합한 결합물은 양극의 수화젤과 만났을 때 반발이

일어나 약물이 빠르게 방출된다. 반대로 음전하 증폭 꼬리표의 경우, 수화젤과 다른 극을 띤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해 방출 속도가 느리다.

연구팀은 기존 3시간 정도의 체내 반감기를 4일 이상으로 증대시켰다. 연구팀은 위 실험과 같은 조건으로 동물 실험을 진행해 각 꼬리표를 융합한 약물의 체내 반감기를 확인했다. 실험 결과, 사람혈청알부민(HSA)⁵⁾과 음전하 증폭 꼬리표를 융합해 만든 단백질 변이체가 가장 높은 순전하(-136)를 기록했다. 이 약물을 주입했을 때 체내 반감기는 약 106시간이었으며 주요 약효가 체내 반감기 동안 유지됐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치료용 단백질의 순전하 크기와 체내 반감기가 반비례함을 확인했다.

플랫폼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제시해

연구팀은 전하 증폭 꼬리표를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 약물과 약물 전달체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전하 증폭 꼬리표는 간단한 조작만을 요구하는 재조합 단백질 기술로 제작된다. 따라서 약물을 제조할 때 추가적인 반응이나 정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권 교수는 “펩타이드 조각들을 간단히 융합해 단백질 약물의 체내 반감기를 조절할 수 있다”라며 상용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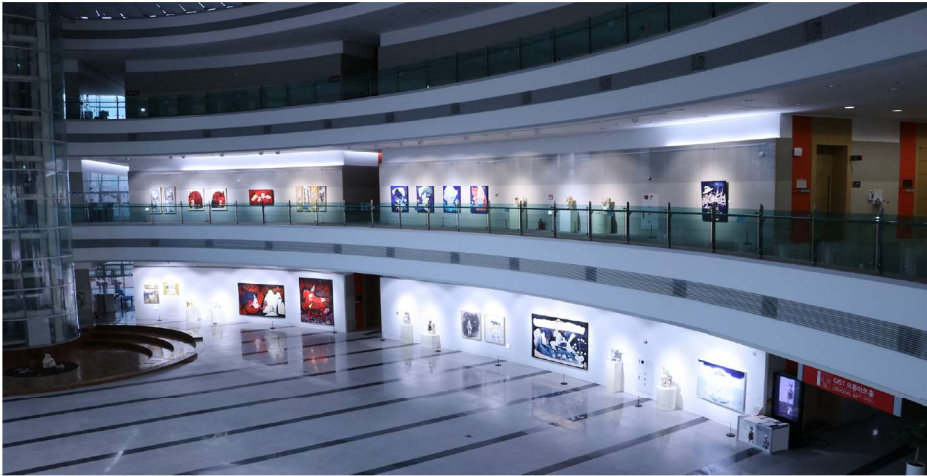
하지만 전하 증폭 꼬리표는 안전성 검증이 부족해 근미래에 상용화되긴 힘들다. 권 교수는 “독성이나 면역 반응 유무에 관해 확인이 필요한 단계다. 영국에서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통풍 치료제에 대한 독성 실험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보다 약효 시간을 더욱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양전하를 띤 수화젤 대신 음전하를 띤 약물 전달체를 사용했을 때 약효 지속 시간 변화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연구팀은 통풍 치료제 대신 항체에 전하 증폭 꼬리표를 적용할 방법을 모색 중이다.

1) 작용 기전: 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설명하는 말이다.
 2) 약물 전달체: 약물을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 약물과 결합하는 제형이다.
 3) 감응성: 외부의 물리적 세기에 따른 물질 내 종량적 특성의 변화 정도다.
 4) 수화젤: 분산기에는 인자이고 분산된 후에는 물이 되는 콜로이드. 물을 분산 매체로 하는 젤이다.
 5) 사람혈청알부민(HSA): 사람혈청 속에 들어 있는 알부민이다. 이때, 알부민은 생체 세포나 체액 중에 넓게 분포된 단순단백질로 글로불린과 함께 세포의 기초물질을 구성한다.

문화

일상 밖 여정으로의 초대: 오룡아트홀 최순임 초대전



오룡아트홀에서 최순임 초대전이 열린 모습이다.

지난 2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GIST 오룡아트홀에서 최순임 초대전 “BON VOYAGE”가 열렸다. 작년 12월 오룡아트홀에서 열린 첫 전시 이후 두 번째 전시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여행’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회화, 입체, 설치 작품 49점을 만날 수 있었다. <지스트신문>에서는 이번 초대전의 디렉터를 맡았던 최순임 작가를 만나 예술인으로 사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전시를 기획한 GIST 아카데미와 인터뷰를 통해 기획 의도를 물었다.

최순임 디렉터와 5분 5담

작가가 된 계기는?

작가라 데뷔해 전시를 시작하기 전엔 아이들을 가르쳤다. 20여 년 동안 지도자로 활동하며 에너지를 발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느꼈다. ‘교육자로서 아이들에게 계속 무언가를 제공하고 있지만 나 스스로는 채워지지 못하고 있구나. 나를 못 찾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핍된 느낌을 예술로 풀어냈다. 첫 번째 개인전을 할 때 “존재 증명”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그런 이유다.

본인의 작품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위버멘쉬(Übermensch),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삶의 목표로 제시한 인간상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초인이란 뜻이다. 내 삶을 극복하고 초월하고 싶은 의지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미술은 현실의 고단함이나 외로움을 초월해 내는 수단, 도구, 결정체다.

작품 활동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무언가를 해내고자 하는 갈증, 갈망, 결핍이다. 전부 작가 노트에 들어있는 말이다. 전시를 개최하기 전 홀에 그림이 걸려있는 모습을 보고 혼자 울컥했다. ‘이게 다 내 몸에서 나왔구나, 직접 그리고 굵고 흙을 붙이고 불을 때는 과정으로 탄생했구나’하는 물리적인 느낌 때문에 소름 돋고 울컥거렸다.

이번 전시에서 관객에게 바라는 관전 요소가 있다면?

그 바람은 안 가져야 할 것 같다. 관전 요소라기보다 새로운 걸 발견해주면 좋겠다. 한 교수님이 전시를 보고 내게 문자 메시지 한 개를 보냈다. “우주 노마드

(nomad)네오.” 작품에 드러난 방랑하는 삶, 우주적 표현을 보고 관람객으로부터 단어 하나를 받기로 만족한다. 작품 속 내 생각이 관람객에 의해 또 다른 측면에서 정의 내려지는 것이 이 전시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작가로서의 목표나 꿈은?

살면서 광주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광주 작가라는 신분으로 살고 있으므로 “다양한 것”에 대한 갈증을 느낀다. 광주를 벗어나 다른 곳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다. 하지만 내 작업을 모르는 사람과 만나는 곳은 다 낯선 곳이다. 그러므로 광주에서 나를 모르는 많은 사람에게 내 작품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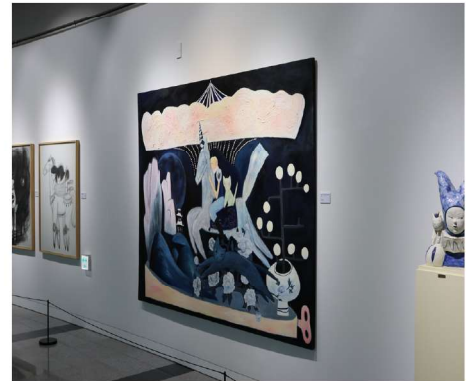
GIST 아카데미와의 인터뷰

이번 전시를 기획한 계기는?

GIST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는 이번 전시를 기획한 계기에 대해, “오룡관의 넓고 웅장한 로비가 차가운 느낌을 주는 대신 따뜻한 소통의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또한 아카데미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오룡아트홀을 예술을 즐기는 휴식 공간으로써 알리는 것이 목표였다고 밝혔다. 아카데미는 지금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오룡아트홀을 방문할지에 관해 고민 중이며, GIST 구성원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했다.



최순임 작가의 입체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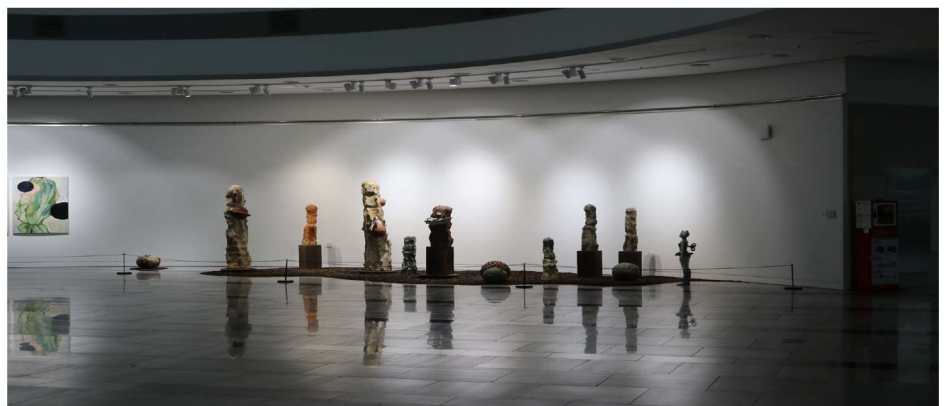
최순임 작가의 회화 작품이다.

오룡아트홀을 만든 목적은?

GIST 구성원이 예술을 누릴 기회를 넓히고 창의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게 오룡아트홀의 목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초대전은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소통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5인 이상 관람할 경우, “작가와의 만남”을 신청하면 작품을 더욱 깊이 있는 시선으로 관람할 수 있다.

오룡아트홀에서는 앞으로도 청년 작가와 지역 유수의 작가를 초대한 다채로운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제2회 초대전 “BON VOYAGE” 이후 오룡아트홀에서는 4월 10일부터 6월 7일까지 “달빛, 달항아리” 전시가 열린다. 가벼운 마음으로 일상을 환기해보는 기회로 삼는 건 어떨까?

이재희 기자 jhlee.ug@gm.gist.ac.kr



최순임 작가의 설치 작품이다.

New International Program; GIST Overseas Exchange Program

GIST and the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Caltech) have been carrying out undergraduate exchange programs from 2011 to 2021. However, GIST failed to extend the Caltech undergraduate exchange program. Instead, a research internship support program was established, and the existing overseas exchange system was strengthened. The overseas research internship will be an opportunity to develop additional research capabilities and passion with the support of the school in conducting research internships abroad.

End of the GIST-Caltech undergraduate program

The GIST and Caltech undergraduate programs began in 2011 with the exchange of two GIST undergraduates to SURF, Caltech's summer research program. Since then,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as signed in 2012, and the comprehensiv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universities commenced.

Since 2011, GIST and Caltech have carried out several programs such as SURF, SAP, and seasonal programs where professors from Caltech were invited to teach at GIST for a semester. GIST has insisted on extending the student exchange program with Caltech. The direction of progress was positive until October 2021. However, the 2022 student exchange program ended when Caltech's management was replaced.

A new international relationship program

The GIST Sec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has been looking for alternatives to student exchange programs with Caltech. The existing exchange

process was revised from a method of intensively supporting a small number of people to increasing the number of selected students and diversifying the schools subject to dispatch. In addition, a new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an overseas research internship support program, was newly established.

The new overseas research internship support program allows students to select institutions autonomously. Previously, only Caltech based on MOU was eligible for support. In contrast, overseas research internship support programs can now be applied to various schools and institutions, such as overseas institutions, research labs, and universities.

The GIST Sec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said it needed help determining the support system and size of the international program. Still, it will strengthen the system by maintaining its stance on diversified overseas dispatch. Sec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emphasized that, unlike other support programs, it is easy to pay subsidies even if there is external support.

Support methods and requirements

The newly established overseas internship program consists of two types. The first is an application method where only students who have applied for their research training programs (internships) operated by overseas research institutes or universities are selected. For instance, this includes the internship program at the Max Planck Institute in Germany and the Caltech SURF program. The second is a method in which students individually contact overseas

institutions or laboratories to apply for research training, conduct the research with approval, and submit a result report to receive subsidies.

The overseas internship program is for GIST students who have been approved for research activities (received an approval notice) for internship activities and must meet the deadline (based on 6 to 10 weeks, separate screening for non-standard periods) and be enrolled at the start of the internship.

As it is a new program established this year, the application period is optional, but it plans to proceed with the application of students about once a semester. In addition, the number of applicants for the program is around 15, and if the number of applicants and approvals within the year exceeds the budget, the support may be closed early.

Significance of the program

The overseas internship program was created to provide various forms of overseas experience, not just for exchange programs for credits. The program aims to support practical research participation at the undergraduate level through overseas internships. Previously, students had to find various research opportunities independently and proceed with the program alone. The international program will provide more opportunities for students who are passionate about research internships and opportunities for students who have yet to think about research to develop their research skills and passion.

Precaution of the program

Among the global talent development programs conducted by GIST,

the Study Abroad Program (SAP), the regular semester Mobility Program, and the summer session program exclude duplicate benefits when selecting participants. However, the overseas internship program can receive additional support from the school after applying again, even when applying to new institutions and universities after completing the internship period. However, it is impossible to extend research at the same institution or the same institution with duplicate support during the same period.

In addition, applicants for the GIST overseas exchange program should immediately inform local officials and schools, including leaders, as soon as problems occur, such as the schedule of the program and group entry and exit. Participants should be aware of and be careful about the program's selection. Details of overseas exchange programs, including overseas internship programs, can be found on the GIST IPA website.

Reporter Sangwoo Kim
swkim0211@gm.gist.ac.kr



제보 및 기고를 기다립니다.

궁금한 일이 있나요? 지스트신문에 취재 요청해주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자유로운 주제의 기고문 환영합니다!

지스트신문이 학내구성원들의 다양한 제보 및 기고를 기다립니다.

Email) editor@gist.ac.kr
Tel) 062-715-5810
H.P) 010-9550-5902

f 지스트신문

-P 지스트신문

오피니언

외부칼럼

Interview; 대화의 본질, 너와 나 사이에서 우리를 보다

Interview라는 단어는 Inter(~사이에서) + view(보다)로 이루어져 있다. 직역하자면 '너와 나 사이에서 보다'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너와 나 사이에서 무엇이 보일까?

두 사람이 대화하는 과정을 떠올려보자. 먼저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마주 보는 상황을, Inter된 상황이라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니라 생각한다. 단순히 마주 보는 것을 넘어서서, 두 사람이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진정으로 Inter되었다고 할 수 있다. 누구 하나가 경계심이나 적개심을 갖고 있다면, 절대로 두 사람 사이에는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하 'Inter' 공간)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두 사람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너와 나 사이에 Inter 공간이 생겼고,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한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너와 나 사이 Inter 공간에서 무엇이 보일까?

너와 나 사이에서 무엇이 보일까?

대화는 너와 나 사이 Inter 공간에 서로의 단어를 채우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둘씩 나의 단어와 상대방의 단어가 Inter 공간에 채워진다. 그렇게 어느 정도 서로의 단어가 채워졌을 때, 나의 단어를 바탕으로 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후 자연스럽게 나를 되돌아보게 된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다음은 상대방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사실은 나의 모습이 보이기 이전에도, 상대방의 단어가 존재하기에, 그 단어를 바탕으로 한 상대방의 모습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모습이 먼저 보이지 않는다. 나의 모습을 보는데 온통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의 단어를 바탕으로 한 나의 모습이 먼저 보이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단어를 바탕으로 한 상대방의 모습이 보인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알아가게 된다.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서로의 입을 맞추어야 비로소 우리가 보인다.

Inter 공간의 채워진 서로의 단어를 바탕으로, 나의 모습과 상대방의 모습을 보았다. 그다음은 무엇이 보일까?

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됨에 따라, Inter 공간에는 서로의 단어들이 많이 채워져 있다. 이 공간에는 동일한 단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채웠고, 상대방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채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뜻은 사뭇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한 단어의 뜻은, 한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동일한 단어라도, 각자가 생각하는 뜻은 미묘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진정한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선, 서로의 단어를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나는 이 과정을 '입을 맞추는 과정'이라 표현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서로의 단어를 넘어서서, 우리의 단어가 생기게 된다. 즉,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의 단어가 아닌, 우리의 단어가 채워지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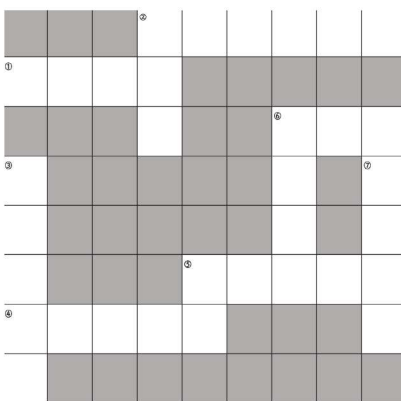
그렇게 입을 맞추는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비로소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나와 상대방의 비슷한 점, 그리고 다른 점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서로 비슷한 점에서 우리는 위안을 느끼고, 서로 다른 점에서는 깨달음을 얻어간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진정한 대화의 본질, Interview의 본질 아닐까?

Interview, 너와 나 사이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다. 당신은 진정으로 누군가와 Interview 해본 경험이 있나요? 이 질문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정환 (전문, 19)

십자말풀이



지난호 정답

	M		패		
	O		타	교	안
H	P	C	바	육	전
F			이	혁	신
			방	타	상
			채	디	고
해	커	톤	움	가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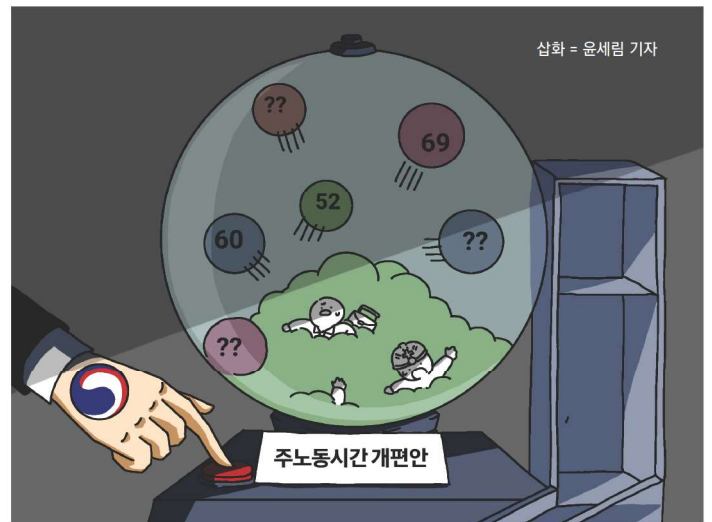
세로

- ChatGPT가 활용하는 언어 모델
- GIST 구성원이 예술을 누릴 기회를 넓히기 위한 공간으로, 다채로운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 학과 공부 이외에 '딴짓'의 기회를 제공하는 GIST의 비교과 프로그램
- 온라인으로 속보 기사를 보도하는 것. (지스트신문) 홈페이지, 공식 인스타그램, 웹메일 등으로 제공된다.

가로

- GIST의 교육철학으로,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 협동심,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을 의미한다.
- 단편 영화 제작을 목표로 활동한 무한도전 참여 팀의 이름
- 인공신경망의 일종이다.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실용성을 인정받아 최근 개발되는 인공지능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 약효를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 약물과 결합하는 제형이다. 수화젤을 예시로 들 수 있다.
- 2023년 새내기배움터가 개최된 장소로, 넓은 자연휴양림을 즐길 수 있다.

만평



삽화 = 윤세림 기자

주노동시간 개편안

사	■임명					
	편집장	김성우	수습기자	김수현	김윤민	Kudsia
령	부편집장	김예릭		김도은	김수경	김현균
	책임기자	김상우		박주명	박지원	배연우
		김원제		신병호	이규서	
		주서현				
	백승유					



지스트신문

2016년 4월 11일 창간

발행인 박래길

주 간 홍성민 편집장 김성우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LG도서관 102호 GIST신문사

전화 062-715-5810

이메일 editor@gist.ac.kr 웹사이트 gistnews.co.kr

페이스북 facebook.com/Gistsinmoon

인스타그램 @gistnews_official